

세무회계저널
제12권 제4호 2011년 12월 pp.103~120
한국세무학회

재량적발생, 전기오류수정과 회계변경을 이용한 이익조정의 선택*

김문현**

—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전기오류수정 또는 회계변경에 앞서 회계발생이 이익조정에 사용되는지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회계발생이 이익조정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전기오류수정 또는 회계변경을 통해 이익조정을 시도하리라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기간은 2004년—2007년이며, 상장 제조기업으로 회계변경 또는 전기오류수정을 보고한 111개 표본과 735개 대응표본이 비교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오류수정손익 또는 회계변경누적액의 보고와 동 시점의 재량적 유동발생액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기오류수정손익 또는 회계변경누적액의 보고 시점의 재량적 유동발생액과 그 전 후 시점의 재량적 유동발생액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익조정의 개연성이 큰 전기오류수정이나 회계변경을 보고한 경우에는 전 후 시점에 비해 동 시점의 재량적 유동발생액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이익조정의 의도를 지닌 기업은 회계발생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며, 회계발생이 이익조정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이익잉여금 조정 항목인 전기오류수정이나 회계변경을 사용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회계발생, 전기오류수정 또는 회계변경이 이익조정에 대체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재량적 유동발생, 전기오류수정, 회계변경, 이익조정

* 이 연구는 2011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moonkym@hufs.ac.kr, 031-330-4073

I.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의 수단으로써 회계발생(accounting accruals)과 전기오류수정(prior period error corrections) 또는 회계변경(accounting changes)이 기업에 의해 대체적으로 선택되어 활용되고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다. 회계발생을 통한 이익조정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전기오류수정 또는 회계변경을 통해 이익조정을 시도하리라는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회계발생, 전기오류수정 또는 회계변경을 이익조정을 위한 별개의 수단으로 고려하기 보다는 대체적인 수단으로 고려하였다.

이익조정 관점에서 회계발생과 전기오류수정 또는 회계변경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미미한 편이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이익조정 수단으로 이들을 별개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익조정 수단들이 이익조정의 효과에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회계발생은 이익에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이고 그 과정이 외부에서 쉽게 관찰되지 않는 반면, 전기오류수정이나 회계변경은 이익에 미치는 효과가 직접적이고 그 이익효과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다. 발생은 이익과 현금흐름의 차이를 야기하는 과정으로 판단, 추정, 배분을 수반한다. 회계발생이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은 이러한 과정이 외적으로 관찰이 용이하지 않은 불확실성이 기초하고 있다. 반면, 전기오류수정이나 회계변경이 이익 또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미치는 효과는 재무제표나 주석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은 크기나 중요도에 따라 손익계산서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보고되며, 회계변경누적액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보고된다. 회계변경이 수시보고사항이었던 기간에는 회계변경의 이유, 대상, 이익효과 등이 회계변경 사실과 함께 주식시장에 공시되었다.

따라서 보고이익 조정이 시장에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는 기업 입장에서는 회계발생을 전기오류수정이나 회계변경보다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선호할 것이다. 그리고 회계발생만으로는 이익조정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되면 전기오류수정이나 회계변경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은밀한 이익조정이 어려워지면 지속적인 이익조정은 전기오류수정이나 회계변경과 같은 보다 직접적인 수단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전기오류수정이나 회계변경의 효과는 당기손익에 보고되는 것과 전기 이익잉여금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회계발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업이 대체적인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어느 것을 사용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고이익의 조정이 외부에 관찰되지 않도록 전기오류수정이나 회계변경이 순이익에 보고되는 것을 피하려할지는 실증을 통해 검증할 과제이다.

회계변경, 전기오류수정 또는 회계변경을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고려한 선행 연구에서는 이들 수단을 별개로 다루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대체적인 수단으로 함께 고려하였다. 즉 기업의 이익조정 행위가 이익조정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본 연

구에서는 전기오류수정 또는 회계변경의 효과가 보고이익에 반영되는지에 따라 이익조정 수단의 선택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II. 선행연구

회계발생액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회계이익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여기에는 기업의 추정과 판단이 개입되므로 발생항목 중 경영자의 재량에 의존하는 부분은 보고 시기의 조정을 통해 이익조정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회계발생은 발생을 야기하는 항목이 다양하고 추정과 판단의 과정이 복잡하여 외부에서 관찰 및 측정이 쉽지 않다. 때문에 회계발생액 중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이 가능한 부분 즉, 재량적 회계발생은 추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회계발생을 이용한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에서 재량적 회계발생액을 추정하는 연구모형으로는 수정 Jones모형(Dechow et al. 1995)과 재량적 유동발생액 추정모형(Dechow and Dichev 2002) 등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전자는 발생액 전체를 설명하는 모형으로 재량적 발생액을 추정하는데 반해, 후자는 발생액 중 유동발생액을 대상으로 현금흐름과의 관련성을 통해 재량적 유동발생액을 추정한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발생액 전체를 추정하지 않고 발생액 전체를 설명하는 변수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어 모형상 간단한 특징이 있다.

재량적 유동발생액 추정모형은 발생액 중 고정발생액은 주로 경영성과에 기인하므로 발생액 중 유동발생액이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총발생액 중 유동발생액이 과거·현재 또는 미래에 영업현금흐름으로 실현되지 않는 부분은 경영자의 재량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총발생액 중에서 유동발생액이 이익조정수단으로 더 사용이 용이하다는 연구결과들로는 Kreutzfeldt and Wallase(1986), Guenther(1994) 등이 있다. 그리고 수정Jones 모형의 종속변수를 유동발생액으로 대체한 연구로는 최정호(2005), 나종길(2004) 등이 있다.

회계발생과 회계변경이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이 둘을 선택적인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반면 송인만·최선재(2001)과 박성환·김유찬(2009), 박성배 외(2009)의 연구는 회계발생과 회계변경이 상호 대체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송인만·최선재(2001)은 1991년-1995년까지 회계변경을 실시한 상장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회계변경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회계변경 전 시점의 재량적 발생액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회계변경을 선택한 기업은 회계변경 연도에 재량적 발생액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회계변경을 실시하며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할 수 있더라도 당해 연도에 필요한 이익관리 규모가 큰 경우에 회계변경을 선택함을 제시하였다. 저자들은 이에 대해 외부에서 쉽게 관찰되지 않는 재량적 발생액이 회계변경에 비해 이익관리에 우선 사용되는 것으로 주

장하였다.

박성환·김유찬(2009)은 재량적 발생액이 회계변경의 자발적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1999년-2006년까지 외환위기 이후 기간의 상장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회계변경의 자발성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회계변경 시점과 그 전기의 재량적 발생액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계변경 전기의 재량적 발생액은 당기의 자발적 회계변경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전기에 이익조정을 위해 재량적 발생액을 소진한 기업이 당기에 회계변경을 이익조정 수단으로 활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송인만·최선재(2001)의 결과와 같다. 당기의 재량적 발생액은 당기의 자발적 회계변경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박성배 외(2009)은 1998년-2006년까지의 회계변경을 실시한 상장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회계변경 전기에 재량적 발생이 클수록 그리고 회계변경의 이익증가 효과가 클수록 주가에 음(-)의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저자들은 회계변경 전기에 재량적 발생액을 양(+)으로 많이 사용하면 다음 기에 재량적 발생을 통하여 이익을 증가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익을 증가시키는 회계변경을 시도하게 되는 경우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들은 회계변경 시점에서의 회계변경 여부와 재량적 발생액 사이의 유의한 관계를 제시하지는 않았는데, 재량적 발생액이 이익조정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회계변경이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회계변경 시점에서 재량적 발생액이 현저히 감소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기오류수정 또한 회계변경과 함께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경우 회계변경누적효과와 보고 방식에서 차이가 없으며 외부에 관찰이 쉽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없다. 전기오류수정 또한 회계변경처럼 재량적 발생이 이익조정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되는지는 실증을 통해 검증해야 할 것이다.

기업특성과 재량적 발생액 사이의 관련성을 제시한 연구에서는 기업규모,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손실보고 여부, 산업 등이 기업특성 변수로 사용되었다. 기업규모와 재량적 발생액 사이의 관계는 일관적이지 않았는데, 이는 기업규모가 생략된 여러 변수(omitted variables)에 대한 대용변수가 될 수 있으며(Becker et al. 1998) 대리인비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서 단정적으로 회귀계수의 부호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나종길·최관 2003). 부채비율이 높을 경우 이익조정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박종성·이은철(2003) 등은 부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채비율에 대해 기업규모와 음(-)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박성배 외(2009)은 부채비율이 높아 재무건전성이 낮은 경우에 이익증가 회계변경의 시도는 주가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Kasznik(1999)는 재량적 발생액과 영업이익률 사이에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재량적 발생액에 수익성으로 인한 편의(bias)가 반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손실회피가 이익조정의 주요 동기임을 보여준 연구에

따르면 이익이 '0'에 약간 미달하는 구간에서 보고이익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Burgstahler and Dichev(1999), Degeorge et al.(1999), 송인만 외(2004) 등은 이익의 횡단면적인 분포도를 통해 적자를 회피하기 위한 이익조정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다만 이은철·손성규(2007)는 이익조정전 이익을 기준으로 '0'에 인접한 적자 표본들의 재량적 발생액이 이와 인접한 다른 구간과 차이가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0'에 인접한 흑자 표본들의 재량적 발생액이 이와 인접한 다른 구간과 차이가 있다는 증거 또한 발견하지 못하였다.

III. 연구의 설계

1. 표 본

〈표 1〉 표본 선정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12월 결산 제조기업(2001년-2010년)	430	430	430	430	1,720
적정의견	395	395	405	409	1,604
자본(-)제외	391	395	405	409	1,900
전후3기간자료	168	212	209	267	856
특이치 제외	167	211	205	263	846
(회계변경 또는 전기오류수정)	(31)	(25)	(30)	(25)	(111)

본 연구의 연구 대상기간은 2004년-2007년으로 4년간 이지만, 회계변경 또는 전기오류수정 손익을 보고한 기간에 대해 전후 각각 2 기간의 재량적 회계발생액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유동 회계발생액 모형을 이용할 경우 전 후 회계자료가 필요하므로 실제 분석에는 2001년-2010년의 회계자료가 사용되었다. 12월 결산 제조기업으로 이 기간 동안 존재한 기업은 매년 430개였다. 금융기관과 제조기업 사이에는 기업 환경과 재무제표요소에 차이가 커 표본을 제조기업에 한정하였다.

재량적 회계발생액은 재무제표 수치를 이용하여 추정하므로 재무제표 자료의 신뢰성이 낮을 경우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회계수치는 자산, 부채, 영업이익, 순이익, 영업 현금,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 현금유입이 없는 수익 등이다.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자본이 음(-)인 경우, 2004년-2007년 각 연도에 대해 전후 3 기간 동안 분석에 사용된 회계자료가 미비한 경우, 특이치 등을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4년-2007년 기간 중 846개

연-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회계변경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보고한 기간 전 후 각각 3 기간의 자료가 미비한 경우 표본에서 제외됨에 따라 12월 결산 제조기업 중 절반 정도가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이 중에서 회계변경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보고한 표본은 111개로, 전체 846개 표본 중 13.1%였다.

2.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회계발생이 이익조정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의 대체적인 수단으로 회계변경과 전기오류수정을 고려하고, 전기오류수정 또는 회계변경 시점을 포함하여 전 후 시점의 재량적 발생의 행태를 비교하였다. 회계발생은 전기오류수정이나 회계변경에 비해 외부에서 그 과정과 크기를 관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익조정 수단으로 선호된다. 그런데 회계발생이 이익조정 목적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익조정의 과정과 크기가 외부에서 관찰되기 쉬운 회계변경과 전기오류수정과 같은 이익조정의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이익조정의 의도를 지닌 기업은 회계발생을 상대적으로 선호할 것이며, 회계발생이 이익조정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전기오류수정이나 회계변경을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익조정의 개연성이 큰 전기오류수정이나 회계변경을 보고한 경우에는 그 시점의 재량적 유동발생액이 적을 것이다.

가설 1 : 전기오류수정손익 또는 회계변경누적액의 보고와 동 시점의 재량적 유동발생액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있다.

한편 전기오류수정 또는 회계변경을 보고한 시점에서 재량적 유동발생액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전기오류수정 또는 회계변경을 보고한 시점에서의 재량적 유동발생액은 그 시점 전후의 재량적 유동발생액과는 다른 행태를 보일 것이다. 즉, 큰 전기오류수정이나 회계변경을 보고한 시점에서의 재량적 유동발생액은 그 시점 전후의 재량적 유동발생액보다 적을 것이다.

가설 2 : 전기오류수정손익 또는 회계변경누적액의 보고 시점의 재량적 유동발생액과 그 전 후 시점의 재량적 유동발생액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을 전기오류수정손익과 회계변경누적액을 보고한 표본을 대상으로 검증하고 비교 목적으로 전기오류수정손익과 회계변경누적액을 보고하지 않은 대응표본과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런데 이익조정의 효과가 쉽게 관찰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업이 그 효과가 당기 이익에 반영되는 것을 피하려 한다면, 전기오류수정손익 또는 회계변경누적액의 보고와 이전 시점의 재량적 유동발생액 사이에서 관찰되는 음(-)의 관계는 전기오류수정손익 또는 회계변경누적액이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수정으로 보고되는 경우에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즉, 전기오류

수정손익이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약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을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순이익에 보고한 하위표본과 전기오류수정손익 또는 회계변경누적액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수정항목으로 보고한 하위표본으로 구분하고, 가설을 재검증하였다.

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유동발생액의 현금전환가능성 여부로 재량적 유동발생액을 측정하는 Dechow and Dichev(2002)의 유동발생액 모형을 재량적 발생의 측정모형으로 사용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유동발생이 현금흐름으로 실현되지 못한 정도를 재량적 유동발생으로 추정하고 이를 이익조정의 크기로 판단한다.

다음 (식1)에서 잔차는 재량적 유동발생액(DAC)의 추정치를 나타낸다. 총발생액은 유동발생액(CAC)과 비유동발생액(NAC)의 합이며, 비유동발생액은 현금유입이 없는 수익에서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영업현금흐름(CF)은 손익계산서상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다. 모든 변수는 기초와 기말 총자산의 평균으로 나누었다.

$$CAC_t/A_{(t-1,t)} = a_0 + a_1 CF_{t-1}/A_{(t-1,t)} + a_2 CF_t/A_{(t-1,t)} + a_3 CF_{t+1}/A_{(t-1,t)} + e_t \quad (\text{식1})$$

단, CAC : 유동발생액
CF :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
A : 총자산
t : 시점

전기오류수정손익 또는 회계변경누적효과를 보고한 시점에서의 재량적 유동발생액(DAC_t)을 종속변수로 하고 전기오류수정손익 또는 회계변경누적효과를 주요 관심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은 다음 (식2)와 같다.

$$DAC_t = b_0 + b_1 SIZE_t + b_2 LEV_t + b_3 ROA_t + b_4 LOSS_t + b_5 ERRCHAN_t + b_6 DCA_{t-2} + b_7 DCA_{t-1} + b_8 DCA_{t+1} + b_9 DCA_{t+2} + \varepsilon_t \quad (\text{식2})$$

단, DAC : 재량적 유동발생액
SIZE : ln(총자산)
LEV : 부채/자산
ROA : 영업이익/자산
LOSS : 손실이 발생한 경우=1, 그렇지 않은 경우=0
ERRCHAN : (전기오류수정손익+회계변경누적효과)/이익
t : 시점

가설1에 의하면, 전기오류수정 또는 회계변경이 보고되는 시점에서 재량적 유동발생액이 감소할 것이므로 ERRCHAN 변수의 계수는 음(-)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가설2에 의하면, 전기오류수정 또는 회계변경 보고 시점에서 재량적 유동발생액이 그 전 후 시점의 재량적 유동발생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므로 DCA_{t-1} 와 DCA_{t+1} 의 계수는 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자의 재량이 아닌 기업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재량적 유동발생액의 체계적인 부분을 고려하기 위해 기업규모, 부채비율, 총자산영업이익률, 손실여부 등을 변수로 추가하였다.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와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익(손실)을 크게(작게) 보고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회계발생을 통한 이익조정이 클 수 있다. 수익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익의 확대에 의한 회계발생의 증가가 예상된다.

IV. 실증결과

1. 기초통계

<표 2>는 기업특성 변수와 회계발생액 변수에 대해 회계변경 또는 전기오류수정을 보고한 표본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기술통계량을 비교 정리한 내용이다.

우선 기업특성을 살펴보면, 2004년-2007년 사이에 회계변경 또는 전기오류수정을 보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에 기업규모와 수익성에 차이가 있었다. $\ln(\text{총자산})$ 으로 측정한 기업규모는 회계변경 또는 전기오류수정을 보고한 표본에서 더 컸으며, 총자산영업이익률로 측정한 수익성은 회계변경 또는 전기오류수정을 보고한 표본에서 더 작았다. 부채비율(LEV)로 측정한 레버리지와 손실보고 여부(LOSS)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었다. 기업특성 간에 차이가 회계발생과 회계변경 또는 전기오류수정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귀분석에 이러한 관련성을 고려하였다.

회계발생액은 회계변경 또는 전기오류수정을 보고한 표본에서 그렇지 않은 기업군 보다 절대치가 더 컸다. 평균총자산 대비 회계발생액의 비중은 회계변경 또는 전기오류수정을 보고한 기업군에서 5배가량 평균의 절대치가 컸다. $(-0.079 : -0.393)$ 회계발생액을 유동발생액과 비유동발생액으로 구분할 경우 회계변경 또는 전기오류수정을 보고한 표본에서 비유동발생액의 절대치가 유의적으로 더 컸다. 두 표본 사이에 유동발생액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동발생액으로 재량적 유동발생액을 추정하므로 두 표본 사이의 유동발생액의 크기 차이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기술통계량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25% 값	50% 값	75% 값	t값
SIZE	대응표본	25.993	1.177	25.197	25.833	26.497	-3.298***
	표본	26.403	1.475	25.402	25.958	27.601	
LEV	대응표본	0.413	0.186	0.268	0.416	0.541	-1.213
	표본	0.436	0.183	0.298	0.451	0.574	
ROA	대응표본	0.048	0.071	0.016	0.047	0.084	2.285**
	표본	0.031	0.104	0.014	0.037	0.068	
LOSS	대응표본	0.180	0.384	0.000	0.000	0.000	-1.152
	표본	0.225	0.420	0.000	0.000	0.000	
ACC	대응표본	-0.079	0.668	-0.063	-0.005	0.018	2.539**
	표본	-0.393	2.888	-0.085	-0.009	0.012	
NACC	대응표본	-0.182	0.870	-0.116	-0.034	-0.006	2.027**
	표본	-0.441	2.660	-0.142	-0.032	-0.003	
CACC	대응표본	0.103	0.521	0.000	0.019	0.089	0.990
	표본	0.048	0.664	-0.001	0.017	0.114	

주1) 표본기간은 2004년-2007년이며, 전기오류수정과 회계변경을 보고한 표본은 111 연-기업이며, 그렇지 않은 대응표본은 735 연-기업임.

주2) SIZE : $\ln(\text{총자산})$, LEV : 부채/자산, ROA : 영업이익/총자산, LOSS : 손실보고=1 그렇지 않은 경우 =0, ACC : 회계발생액/평균총자산, NACC : 비유동성회계발생액/평균총자산, CACC : 유동성회계발생액/평균총자산.

주3) t값은 평균차이 검정 결과이며, ***, **, * 는 각각 1%, 5%, 10%수준(양측)에서 계수가 유의함을 나타냄.

〈표 3〉 전기오류수정손익과 회계변경누적효과의 기술통계

	개수	평균	표준편차	25% 값	50% 값	75% 값
ERR_IS	58	-0.001	0.310	-0.035	0.001	0.054
ERR_RET	9	0.287	0.520	0.171	0.302	0.534
CHANGE	49	0.075	0.543	-0.033	0.022	0.139
ERRCHAN	111	0.056	0.456	-0.029	0.011	0.120

주1) 표본기간은 2004년-2007년이며, 전기오류수정과 회계변경을 보고한 표본은 111 연-기업임.

주2) ERR_IS : 손익계산서에 보고한 전기오류수정손익/순이익, ERR_RET : 이익잉여금 조정 항목으로 보고한 전기오류수정손익/순이익, CHANGE : 이익잉여금 조정 항목으로 보고한 회계변경누적효과/순이익, ERRCHAN : ERR_IS + ERR_RET + CHANGE.

주3) t값은 평균차이 검정 결과이며, ***, **, * 는 각각 1%, 5%, 10%수준(양측)에서 계수가 유의함을 나타냄.

<표 3>은 전기오류수정손익과 회계변경누적효과가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리한 내용이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것과 이익잉여금 조정 항목으로 보고되는 것을 구분하였다. 표본 111개 중에서 손익계산서를 통해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보고한 경우가 58개이며, 회계변경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 조정 항목으로 보고한 경우가 49개였다. 중대한 오류로써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이익잉여금 조정 항목으로 보고한 경우는 9개로 비중이 가장 낮았다. 이를 재분류하면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는 항목과 이익잉여금 조정 항목이 각각 58개씩이었다. 전체 경우의 합과 부분의 합이 다른 것은 전기오류수정과 회계변경을 모두 보고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 전기오류수정 또는 회계변경과 재량적 유동발생액의 관련성 검증

<표 4> 재량적 유동발생액의 기간간 비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25% 값	50% 값	75% 값	t값
DCA_{t-2}	대응표본	-0.077	1.317	-0.185	-0.172	-0.125	-0.209
	표본	-0.050	0.528	-0.183	-0.164	-0.107	
DCA_{t-1}	대응표본	-0.059	0.800	-0.185	-0.170	-0.116	1.107
	표본	-0.169	1.758	-0.187	-0.172	-0.121	
DCA_t	대응표본	-0.095	0.307	-0.183	-0.164	-0.102	1.265
	표본	-0.136	0.424	-0.189	-0.169	-0.118	
DCA_{t+1}	대응표본	-0.056	1.608	-0.183	-0.162	-0.092	0.498
	표본	-0.132	0.422	-0.185	-0.167	-0.095	
DCA_{t+2}	대응표본	0.011	1.073	-0.183	-0.158	-0.077	1.137
	표본	-0.110	0.906	-0.191	-0.158	-0.032	

주1) 표본기간은 2004년-2007년이며, 전기오류수정과 회계변경을 보고한 표본은 111 연-기업이며, 그렇지 않은 대응표본은 735 연-기업임.

주2) DCA_t : 전기오류수정 또는 회계변경을 보고한 t시점의 재량적 유동발생

주3) t값은 평균차이 검정 결과이며, ***, **, * 는 각각 1%, 5%, 10%수준(양측)에서 계수가 유의함을 나타냄.

<표 4>는 회계변경 또는 전기오류수정을 보고한 표본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 대해 회계변경 또는 전기오류수정 보고 전후 각각 2 기간의 재량적 발생액을 정리한 내용이다. 회계변경 또는 전기오류수정을 보고한 표본에 대해 재량적 유동발생액의 기간간 변화를 보면 회계변경 또는 전기오류수정 보고 1기 전 시점의 절대치가 0.169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본 기업에서 2기 전의 0.050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며, 회계변경 또는 전기오류수정 보고 시점과 1기 후 시점의 0.136과 0.132에 비해서도 큰 값이다. 이러한 결과는 표본 기업에서 회계변경과 전기오류수정 보고에 앞서 재량적 회계발생을 통한 이익조정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반면 회계변경

또는 전기오류수정을 보고하지 않은 대응표본의 경우 재량적 유동발생액의 기간간 추이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의 결과는 표본과 대응표본의 재량적 유동발생액 사이에는 차이가 없지만, 기간간 표본별 추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표본에서 회계변경과 전기오류수정 보고와 그 이전 재량적 유동발생액 사이에 관련성을 제시한다.

<표 5> 재량적 유동발생액의 상관관계

[패널A] 전기오류수정과 회계변경을 보고하지 않은 대응표본				
	DCA_{t-1}	DCA_t	DCA_{t+1}	DCA_{t+2}
DCA_{t-2}	-0.115^{***}	0.012	-0.325^{***}	0.066^*
DCA_{t-1}		0.197^{***}	0.015	0.191^{***}
DCA_t			0.137^{***}	0.170^{***}
DCA_{t+1}				-0.155^{***}
DCA_{t+2}				

[패널B] 전기오류수정과 회계변경을 보고한 표본							
	DCA_{t-1}	DCA_t	DCA_{t+1}	DCA_{t+2}	ERR_IS	CHANGE	ERRCHAN
DCA_{t-2}	0.157^*	0.243^{***}	0.004	-0.105	0.004	0.025	0.006
DCA_{t-1}		-0.192^{**}	-0.172^*	-0.267^{***}	0.000	0.027	0.003
DCA_t			-0.608^{***}	0.090	-0.002	-0.226^{**}	-0.023
DCA_{t+1}				-0.070	0.008	0.125	0.020
DCA_{t+2}					0.009	-0.101	-0.008
ERR_IS						0.009	0.994^{***}
CHANGE							0.105

주1) 표본기간은 2004년-2007년이며, 전기오류수정과 회계변경을 보고한 표본은 111 연-기업이며, 그렇지 않은 대응표본은 735 연-기업임.

주2) DCA_t : 전기오류수정 또는 회계변경을 보고한 t시점의 재량적 유동발생, ERR_IS : 손익계산서에 보고한 전기오류수정손익/순이익, CHANGE : 이익잉여금 조정 항목으로 보고한 회계변경누적효과/순이익임.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이익잉여금 조정 항목으로 보고한 경우는 표본이 적어 생략함.

ERRCHAN : $ERR_IS + ERR_RET + CHANGE$.

주3) Pearson 상관계수이며 ***, **, * 는 각각 1%, 5%, 10%수준(양측)에서 계수가 유의함을 나타냄.

<표 5>는 재량적 유동발생액과 오류수정손익 또는 회계변경누적효과의 상관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전기오류수정손익 또는 회계변경누적효과를 보고한 표본과 그렇지 않은 대응표본을 비교해 보면, 대응표본과 달리 표본에서 t-2 시점의 재량적 유동발생액은 전기오류수정손익 또는 회계

변경누적효과를 보고한 $t=0$ 시점의 재량적 유동발생액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후 $t+1$, $t+2$ 시점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t-1$ 시점과 $t=0$ 시점의 재량적 유동발생액의 상관관계는 대응표본에서 양(+)인 반면 표본에서는 음(-)의 유의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는 전기오류수정손익 또는 회계변경누적효과를 보고하는 기업들이 그 이전에 재량적 유동발생액을 조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재량적 유동발생액, 전기오류수정손익, 회계변경누적효과가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재량적 유동발생액의 조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전기오류수정손익 또는 회계변경누적효과를 통한 이익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기오류수정손익 또는 회계변경누적효과를 보고한 시점에서 재량적 유동발생액과 회계변경누적효과의 음(-)의 유의적인 상관관계 또한 그 보고 시점에 재량적 유동발생액이 이익조정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t-1$ 기에 비해 $t=0$ 기에 재량적 유동발생액이 감소함에 따라 $t=0$ 기에 재량적 유동발생액에 의한 이익조정이 어렵다면 이 시점에서 이익조정에 대한 재량적 유동발생액의 역할을 회계변경이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재량적 발생액의 기간간 반전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해서는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기오류수정손익과 회계변경누적효과의 합이 전기오류수정손익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 두 수단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6>은 전기오류수정손익 또는 회계변경누적효과를 보고한 시점($t=0$)의 재량적 유동발생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기업특성 변수와 시점별 재량적 유동발생액, 전기오류수정손익과 회계변경누적효과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모형1은 전기오류수정 또는 회계변경을 실시한 표본에 대한 결과이며, 모형2는 그렇지 않은 대응표본에 대한 결과이다. VIF값으로 판단하건데 네 모형에서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1에서, 주요 관심변수인 ERRCHAN의 계수는 유의적인 음(-)으로 나타났다. 전기오류수정손익 또는 회계변경누적효과와 이를 보고한 시점의 재량적 유동발생액 사이의 음(-)의 관계는 전기오류수정손익 또는 회계변경누적효과가 클수록 재량적 유동발생액이 적음을 나타낸다. 재량적 유동발생액의 조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전기오류수정손익 또는 회계변경누적효과를 통한 이익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오류수정손익 또는 회계변경누적효과의 보고 전 후 시점의 재량적 유동발생액의 계수는 유의적인 음(-)이었다. 이는 전기오류수정손익 또는 회계변경누적효과의 보고 시점에서 재량적 유동발생액이 시점별 행태에서 벗어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익조정에 충분하지 않음을 제시한다. 기업규모 변수외에는 기업특성 변수는 전기오류수정손익 또는 회계변경누적효과의 보고 시점의 재량적 유동발생액과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변수가 기업특성을 대리하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유동발생액 모형이 기업특성변수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6〉 재량적 유동발생액과 전기오류수정 또는 회계변경과의 회귀분석-표본

종속변수 DCA_t	표본		대응표본	
	모형1-1	모형1-2	모형2-1	모형2-2
변수	계수(t값)	계수(t값)	계수(t값)	계수(t값)
constant	-1.590 (-2.059 ^{**})	-0.657 (-1.131)	-2.473 (-10.368 ^{***})	-2.082 (-7.844 ^{***})
SIZE	0.058 (2.009 ^{**})	0.012 (0.546)	0.089 (9.747 ^{***})	0.075 (7.348 ^{***})
LEV	-0.171 (-0.741)	0.234 (1.408)	0.099 (1.683 [*])	0.092 (1.571)
ROA	0.100 (0.217)	0.306 (0.943)	0.384 (2.122 ^{**})	0.344 (1.897 [*])
LOSS	0.028 (0.238)	0.025 (0.314)	-0.017 (-0.507)	-0.021 (-0.619)
ERRCHAN	-0.208 (-2.314 ^{**})	-0.131 (-2.060 ^{**})	—	—
DCA_{t-2}		0.221 (3.855 ^{***})		-0.001 (-0.086)
DCA_{t-1}		-0.088 (-5.006 ^{***})		0.034 (2.461 ^{**})
DCA_{t+1}		-0.685 (-9.886 ^{***})		0.023 (3.319 ^{***})
DCA_{t+2}		-0.019 (-0.585)		0.022 (2.091 ^{**})
F값	2.141 [*]	15.195 ^{***}	30.430 ^{***}	18.419 ^{***}
adj. R^2	0.049	0.537	0.138	0.160
최대 VIF	LOSS 1.495	LOSS 1.499	LOSS 1.542	LOSS 1.559
표본수	111	111	735	735

주1) 표본기간은 2004년-2007년이며, 모형1은 전기오류수정과 회계변경을 보고한 표본 111 연-기업을 대상으로한 회귀분석 결과이며, 모형2는 전기오류수정과 회계변경을 보고하지 않은 표본 735 연-기업을 대상으로한 회귀분석 결과임.

주2) SIZE : ln(총자산), LEV : 부채/자산, ROA : 영업이익/총자산, LOSS : 손실보고=1 그렇지 않은 경우=0, ERRCHAN : (전기오류수정손익+회계변경누적효과)/순이익, DCA_t : 전기오류수정 또는 회계변경을 보고한 t시점의 재량적 유동발생

주3) ***, **, * 는 각각 1%, 5%, 10%수준(양측)에서 계수가 유의함을 나타냄.

모형2에서, $t=0$ 시점 전 후 시점의 재량적 유동발생액의 계수는 모형1과 달리 유의적인 양 (+)이었다. 이는 전기오류수정 또는 회계변경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재량적 유동발생액이 시점별 일정한 행태를 보임을 의미한다. 재량적 발생액의 기간간 반전현상이 있다면 이 부호는 (-)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기업규모와 영업이익률 변수는 재량적 유동발생액과 유의적인 양 (+)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와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3. 전기오류수정 또는 회계변경의 보고방식과 재량적 유동발생액의 관련성 검증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보고되거나 중요한 경우 이익잉여금의 조정항목으로 보고된다. 후자의 경우 회계변경누적효과의 보고와 같은 방식이다. 따라서 이익 또는 이익잉여금에 보고되는 차이에 따라 회귀분석의 결과가 달라지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표본을 손익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보고하는 표본(ERR_IS 표본)과 이익잉여금에 전기오류수정손익과 회계변경누적효과를 보고하는 표본(ERR_RET+CHANGE 표본)으로 구분하여 추가분석을 하였다.

〈표 7〉 하위표본에서의 재량적 유동발생액의 상관관계

	DCA_{t-2}	DCA_{t-1}	DCA_t	DCA_{t+1}	DCA_{t+2}
DCA_{t-2}		0.629***	0.494***	-0.463***	0.051
DCA_{t-1}	0.134		0.251*	-0.317**	-0.021
DCA_t	0.097	-0.260**		-0.240*	0.072
DCA_{t+1}	0.132	-0.167	-0.723***		0.031
DCA_{t+2}	-0.198	-0.343***	0.103	-0.099	

주1) 표본기간은 2004년-2007년이며, ERR_IS 표본은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순이익에 보고한 53개 연-기업이며, ERR_RET + CHANGE 표본은 전기오류수정손익 또는 회계변경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 조정항목으로 보고한 58개 연-기업임.

주2) DCA_t : 전기오류수정 또는 회계변경을 보고한 t 시점의 재량적 유동발생, ERR_IS : 손익계산서에 보고한 전기오류수정손익/순이익, CHANGE : 이익잉여금 조정항목으로 보고한 회계변경누적효과/순이익임.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이익잉여금 조정항목으로 보고한 경우는 표본이 적어 생략함.

주3) Pearson 상관계수이며, 표 우측 상단은 ERR_IS 표본의 결과이며, 좌측 하단은 ERR_RET+CHANGE 표본의 결과임. ***, **, * 는 각각 1%, 5%, 10%수준(양측)에서 계수가 유의함을 나타냄.

〈표 7〉의 상관관계 결과에서, 전기오류수정손익 또는 회계변경누적효과의 보고 시점과 그 전 후 재량적 유동발생액의 상관관계는 음(-)으로 앞서 전체 표본에 대한 결과와 다르지 않았다.¹⁾ 다만,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보고한 시점과 그 직전 시점의 재량적 유동발생액은 10% 수준에서

1) 시점별 재량적 유동발생액의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 평균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전기오류수정 또는 회계변경의 결과를 이익에 보고하건 이익잉여금에 보고하건 시점별로 재량적 유동발생액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적인 양(+)의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경우와 이익잉여금에서 조정되는 경우에 회계발생액과의 관계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8>은 전기오류수정손익 또는 회계변경누적효과를 보고한 시점($t=0$)의 재량적 유동발생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기업특성 변수와 시점별 재량적 유동발생액, 전기오류수정손익과 회계변경누적효과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VIF값으로 판단하건데 네 모형에서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재량적 유동발생액과 전기오류수정 또는 회계변경과의 회귀분석—하위표본

종속변수 DCA_t	ERR_IS 표본		ERR_RET와 CHANGE 표본	
	계수	t값	계수	t값
constant	1.395	1.158	-1.215	-1.967*
SIZE	-0.056	-1.227	0.026	1.103
LEV	-0.110	-0.426	0.490	2.525**
ROA	0.011	0.025	1.584	2.472**
LOSS	-0.032	-0.247	0.062	0.617
ERRCHAN	-0.074	-0.484	-0.169	-2.954***
DCA_{t-2}	0.396	3.055***	0.171	2.911***
DCA_{t-1}	-0.012	-0.071	-0.094	-6.255***
DCA_{t+1}	0.087	0.301	-0.778	-13.347***
DCA_{t+2}	0.039	0.655	-0.066	-1.965*
$F_{값}$	1.946*		25.464***	
adj. R^2	0.141		0.794	
최대 VIF	DCA_{t-1} 2.075		DCA_{t-1} 1.539	
표본수	53		58	

주1) 표본기간은 2004년-2007년이며, ERR_IS 표본은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순이익에 보고한 53개 연-기업이며, ERR_RET + CHANGE 표본은 전기오류수정손익 또는 회계변경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 조정 항목으로 보고한 58개 연-기업임.

주2) SIZE : $\ln(\text{총자산})$, LEV : 부채/자산, ROA : 영업이익/총자산, LOSS : 손실보고=1 그렇지 않은 경우=0, ERRCHAN : (전기오류수정손익+회계변경누적효과)/순이익, DCA_t : 전기오류수정 또는 회계변경을 보고한 t시점의 재량적 유동발생.

주3) ***, **, * 는 각각 1%, 5%, 10%수준(양측)에서 계수가 유의함을 나타냄.

주요 관심변수인 ERRCHAN의 계수는 전기오류수정손익과 회계변경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 조정 항목으로 보고한 표본에서만 유의적인 음(-)을 보였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순이익 항목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전기오류수정손익과 회계변경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 조정 항목으로 보고한 표본에서만 전기오류수정손익 또는 회계변경누적효과

보고 전 후 시점의 재량적 유동발생액의 계수는 유의적인 음(-)이었다. 그리고 이 하위 표본에서 레버리지비율과 영업이익률 변수의 계수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순이익에 보고되는 경우보다는 이익잉여금에서 조정되는 전기오류수정과 회계변경이 재량적 유동발생액이 충분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됨을 제시한다. 즉 보고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이익조정 목적으로 회계발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전기오류수정 또는 회계변경이 사용되는지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회계변경을 실시한 전 연도의 재량적 발생액이 충분하지 않고 회계변경과 당기의 재량적 발생액과는 관련성이 없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회계변경과 전기오류수정을 회계발생의 대체적인 수단으로 함께 고려하였으며, 전기오류수정 또는 회계변경 보고 시점의 재량적 유동발생액도 전기오류수정 또는 회계변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회계변경 또는 전기오류수정을 통한 이익조정은 이익조정의 과정과 크기가 외부에서 쉽게 관찰되지 않는 회계발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익조정의 대체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기간은 2004년-2007년으로 4년이며, 상장 제조기업으로 회계변경 또는 전기오류수정을 실시한 111개 표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비교목적으로 회계변경 또는 전기오류수정을 실시하지 않은 735개 연-기업을 대응표본으로 사용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전기오류수정손익 또는 회계변경누적액의 보고와 동 시점의 재량적 유동발생액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기오류수정손익 또는 회계변경누적액의 보고 시점의 재량적 유동발생액과 그 전 후 시점의 재량적 유동발생액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익조정의 의도를 지닌 기업이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회계발생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며, 회계발생이 이익조정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전기오류수정이나 회계변경을 이익조정의 대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회계발생과 회계변경을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는 이전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는 회계발생과 전기오류수정 또는 회계변경을 함께 이익조정의 대체적인 선택 수단으로 고려하고, 전기오류수정과 회계변경을 실시하는 시점과 그 전후의 재량적 유동발생액의 행태를 고려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재량적 발생액의 기간간 반전효과에 대해서는 추후 세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회계변경의 동기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나종길. 2004. 유동발생의 예측오차와 감사인 유형에 따른 재량적 발생의 정보성 차이. 회계학연구 제29권 제1호 : 117 - 142.
- 나종길 · 최 관. 2003. 회계발생액과 차별적 감사수요. 회계학연구 제28권 제1호 : 1 - 31.
- 박성배 · 박성근 · 박성환. 2009. 회계변경유형과 기업특성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27권 제4호 : 299 - 322.
- 박성환 · 김유찬. 2009. 재량적 발생액과 회계변경효과가 회계변경의 자발적 선택에 미치는 영향 -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18권 2호 : 251 - 280.
- 박종성 · 이은철. 2003. 회계제도의 개선과 회계정보의 유용성, 회계학연구 제28권 : 105 - 136.
- 송인만 · 백원선 · 박현섭. 2004. 적자보고를 회피하기 위한 이익조정, 회계저널 제13권 제2호 : 29 - 51.
- 송인만 · 최신재. 2001. 경영자의 전략적 회계선택 : 회계변경과 재량적발생액의 선택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26권 제1호 : 105 - 125.
- 이은철 · 손성규. 2007. 재량적발생액을 이용한 횡단면적 분포도상의 적자회피 이익조정에 대한 재조정. 회계학연구 제32권 제2호 : 61 - 87.
- 최정호. 2005. 회계제도 개선과 감사품질이 재량적 발생의 크기와 정보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0권 제2호 : 107 - 149.
- Becker, C., M. DeFond, J. Jiambalvo, K. Subramanyam. 1998.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Earnings Management.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Vol 15 : 1 - 24.
- Burgstahler, D., and I. Dichev. 1997. Earnings Management to avoid earnings decreases and loss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4 : 99 - 126.
- Dechow, P.D., I.D. Dichev. 2002. The Quality of Accruals and Earnings : The Role of Accrual Estimation Errors. *The Accounting Review* 77 Supplement : 35 - 59.
- Dechow, P. M., R. G. Sloan, A. P. Sweeney. 1995.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70 : 193 - 225.
- DeGeorge, F., Patel, J., and Zeckhauser, R. 1999. Earnings Management to Exceed Thresholds. *Journal of Business* 72 : 1 - 33.
- Guenther, D. 1994. Measuring Earnings Management in Response to Corporate Tax Rate Changes : Evidence from the 1986 Tax Reform Act. *The Accounting Review* 69(January) : 230 - 243.
- Kasznik, R. 1999. On the Association Between Voluntary Disclosure and Earnings Managemen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7 : 57 - 821.
- Kreutzfeldt, R., W. Wallase. 1986. Error Characteristics in Audit Populations : Their Profiles and Relationships to Environmental Factor.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6(Fall) : 20 - 43.

The Choice of Earnings Management using Accounting Accruals, Prior Period Error Corrections or Accounting Changes

Moon Hyun Kym^{*}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how accounting accruals, prior period error corrections or accounting changes were used as a means of earnings management. The expectation is a negative relation between discretionary current accruals and prior period error corrections or accounting changes. Test period is from 2004 to 2007. Samples were 111 firms and 735 other firms were selected for a comparison from public, manufacturing firms.

The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negative relation between discretionary current accruals and effect of prior period error corrections or accounting changes. Also, there was a negative relation between discretionary current accruals in $\text{time}=0$ and those of $\text{time}=\pm 1$; $\text{time}=0$ is when firms reported prior period error corrections or accounting changes.

The empirical results imply that the firms which tend to manage earnings are likely to use accounting accruals, prior period error corrections or accounting changes in order. If there are not enough accounting accruals, the next means of earnings management will be prior period error corrections or accounting changes.

<Key words> discretionary current accruals, prior period error corrections, accounting changes, earnings management

*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Busines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